아주대학교중국정책연구소벙커(2020. 07. 08.)

일본

**JIIA Strategic Comments (2020-12):  
The Two Disruptions Rocking the US**

1.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는 매우 침체되었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1분기 미국의 GDP가 -5%로 2019년 4분기 2.1%에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뒤흔드는 또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조지플루이드의 죽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흑인시위가 발생했으며, 일부 시위는 과격시위로 변질되어 약탈행위가 일삼아 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 두가지 사안은 정치혼란으로 나타나고있다. 경제재가동중심의 트럼프의 정책과, 민주당의 뉴욕시장은 경제재가동 보다는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미국의 코로나 치료비로 인한 의료보험 논쟁이 재개되면서, 기존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던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4. JIIA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전례없는 사회적 혼란’이라고 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 JIIA Strategic Comments (2020-13): China's Situation after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1. 올해 전인대의 사전 주목점은 코로나19에 대한 전쟁승리여부, 그리고 경제성장이었으나, 홍콩판 국가보안법 도입 등 앞의 2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2. 전인대 개최 전, 코로나19의 승리선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리커창 총리는 감염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 올해 연간 성장 목표치가 제시되어지지는 않았다. 펜데믹에 따른 경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분기 GDP성장률이 -6.8%를 기록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제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표현했다.
4. 또한 중국의 빈부격차에 관련해서도 말을 했으며, 중국의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할 문제중에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국방비가 전년대비 6.6%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기에, 코로나 와중에도 군사력 강화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전인대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홍콩관련 일은 내정간섭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일국양제와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을 저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 JIIA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경청해 그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었다.

추가 :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치,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리에 부쳐왔으나, 홍콩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홍콩의 법률제정의 원칙인 일국양제가 무너졌다고 평가되고있으며, 이는 앞으로 홍콩이 급속도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편입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Tokyo Foundation

# The November Elections Won’t Solve Washington’s China Problem

1.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대선이 넉 달 남짓으로 다가왔다. 이는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될 것이다.
2.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과의 무역대결이다. 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다툼하는 정책이 골자이며, 최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되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으면서, 트럼프의 어조는 확실히 대중비판으로 굳어졌다.
3. 바이든의 정책은 오바마의 대중정책을 지지한다. 오바마의 리밸런싱 정책은 가능한 중국을 참여시키고 필요할 때 맞서려는 미국의 정책이었다. 2011년 바이든은 “나는 지금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크게 발전하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4. 하지만 바이든 또한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그리고 중국의 환경파괴적인 기후정책을 비판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정책이 이전만큼 온화적이지는 않다.
5.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는 발언과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현재의 미중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쿄재단은 미중갈등의 격화는 필연적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